

심 민 군수, 태풍피해 현장점검

제46대 군수 취임식 전격 취소...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심 민 임실군수가 2일로 예정된 민선 7기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곧바로 태풍피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임실군은 당초 이날 제46대 임실군수 취임식을 군민회관에서 개최기로 했으나,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대신 태풍 피해 위험지역을 찾는 것으로 민선 7기 첫 업무에 돌입했다.

또한 심 군수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심 군수는 송하진 도지사가 방문한 기문대 집중호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운암면 임석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2010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군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지역이다. 2017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

험지역 D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8억원의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고 지원을 받아 실시실계를 완료한 상태다. 군은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운암면에 위치한 옥정호 순환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지정된 아름다운 도로로 붕어섬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군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인 재해위험우려 지역, 산사태 집중관리지역, 저수지 등에 대해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는 발빠른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배수펌프장 및 예·경보시설 등의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특히 이번 태풍이 초속 30m 내외의 강한 바람과 국지성 폭우까지 동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하

수나 농작물 침수피해 대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13개 협업분야 및 유관기관 상향 근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 예찰 및 통제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방재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심 민 군수는 취임식 대신 가진 긴급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하는 시점에 태풍이 북상하여 취임식을 갖지 못했지만,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4년도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임실군청 전 공직자들이 민선 7기의 안정적인 군정운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금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취약지역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태풍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의장단 선출 당 개입 철회 촉구

임실읍 이장단, "기초의회의 자치권·자율성 실추" 주장

임실군 임실읍 이장단이 임실군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있어 당이 개입해 기초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장단 선출에 간섭을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

다. 임실읍 이장단 최태봉 회장(78)을 비롯한 20여 명의 임실읍 이장들은 2일 오전 9시 30분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임실군의회의 의장단 선출은 기초의회에서 주도해야지 당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당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이장들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정당회담 등 사회적 영향에 힘입어 집권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군민들도 최근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최근 벌어지는 임실군의회의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있어 당이 적폐나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전 박희승 지역위원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장단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만큼 더욱 겸손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더욱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 기초의회에서 발생하는 의장 선거 등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당에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읍 이장단은 2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임실군의회의 의장단 선출은 기초의회에서 주도해야지 당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당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제49대 황숙주 순창군수는 2일 직원들과 함께하는 간소한 취임행사에서 순창의 4년 희망의 문을 힘껏 열었다.

"순창의 위대한 발전 이루겠다"

황숙주 군수 태풍대비로 취임식 취소, 행사 간소화

"3만 군민 모두와 함께 순창의 위대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제 49대 황숙주 순창군수는 2일 직원들과 함께하는 간소한 취임행사에서 순창의 4년 희망의 문을 힘껏 열었다.

이날 취임행사는 당초 향토회관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태풍대비와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하는 간소한 행사로 대체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 권필남 여사, 직원 300여명이 함께 했으며 개식선언, 국민의례,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축하메시지 낭독, 꽃다발증정, 군민의 노래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황군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군민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3만 군민 모두의 군수로서 순창 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황군수는 민선 7기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시한 민선 7기 6대 발전 방향은 ▲농민이 행복한 순창 ▲관광이 돈이 되는 순창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 ▲교육일번지 순창 ▲복지가 먼저인 순창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이다.

황군수는 "민선 7기는 6대 군정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완성하고, 공약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을 성공리에 추진해 그동안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군민들이 실제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체감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더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공직자들과 함께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청소년 UCC공모전 임실초 영어 동아리 '대상'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친구·가족 사랑을 위한 청소년 UCC 및 수기, 포스터, 웹툰 공모전'에서 임실초등학교 영어동아리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청소년 UCC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대상에 임실초등학교 영화동아리(조민서 외 13명), 최우수상은 강민서(관촌중), 김태림(청운초), 정준호 외 11명(한국치즈과학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됐다.

공모에는 UCC(18팀), 수기(5팀), 웹툰(5팀), 포스터(45팀)등 총 73팀(작품)이 응모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민서 학생은 친구들을 대표하여 "이번 UCC 제작을 하면서 영화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촬영을 하면서 친구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선정

남원시(시장 이현주)가 '남원다움 라키비움'의 체험형 콘텐츠 구축을 위해 지원한 '2018년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전북도,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함께 총 사업비 3억원(국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투자해 남원 근현대거리 체험형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된 과제는 남원 구도심의 보존과 재현을 위해 진행 중인 '남원구도심기록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원 근·현대 거리를 재현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 단순 전시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 및 관광객에게 근현대 체험 교육(시간여행)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남원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국가예산 확보는 우리 직원의 발품에 대한 마일리지'라는 취지에 맞게 이뤄낸 적극적인 성과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남원다움 라키비움은 전시, 열람, 휴식, 체험 등의 기능을 합친 근현대기록관으로 현재 전시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예정) 금동 고생지구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남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교통신호등에 비해 시인성이 높은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검은색으로 된 교통신호등의 외관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꾼다. 계절, 날씨, 반낮 상관없이 먼 거리에서도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릴으로써 운전자의 신호 위반 예방과 차량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신호등을 용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

치하고, 시범 운영 후 시민반응과 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나머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노란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와 녹색어머니회는 노란신호등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